도민톡톡

익산경찰서, 금융기관 절도예방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개최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설 명절을 맞아 금융기관 절도 예방을 위해 최근 중앙지구대장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실시, 금융기관 대표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찰서장 명의 서한문과 범죄예방홍보안을 전달하고 범죄예방 요령을 교양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앙지구대장이 직접, 매일 개점하기前 금융기관 대표자들에게 개·폐점·중식 취약시간대에는 남자직원이 점포 앞을 살필 수 있도록, 중식시간에는 남자직원이 사무실에 남아 있도록 하는 등의 자위방범을 위한 당부메세지를 발송하여 금융기관 대표자가 매일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이를 숙지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설 명절 구제역 차단 방역

익산시는 인구 이동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을 앞두고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대책 상황실을 정상 운영하는 등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의심축 신고 접수, 초동 대응팀 운영, 거점소독통제초소 통제관리, 취약농가에 대한 사전 예찰 강화 등의 '설 명절 구제역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상황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구제역 차단 방역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연휴 기간에도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해 귀향?귀성객에 의한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장대-Melbourne Polytechnic 교육·연구 교류 업무협약 체결

군장대학교(총장 이승우)와 호주 Melbourne Polytechnic(CEO Rob Wood)은 지난 3일 교육, 연구 및 전문적 활동의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는 다년제대학 교육 시스템에 대한 협력, 교수·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학술협력활동,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한국 NCS 기반 훈련교사 및 평가사 양성 교육센터 설립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호주 Melbourne Polytechnic은 호주 북부에 위치한 멜버른 연구소(NMIT)와 연계하여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및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 6개 도시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지발위 지원사업으로 환경정화 수림대 조성·노후기반시설보수 등 추진

군산시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 공모 '새뜰마을사업'이 지난 3일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에서 계획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안전위험 해소 등을 포괄·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9년까지 총사업비 68억원 중 국·도비 46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집수리사업▲군산산업 단지로부터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정화 수림대 조성 ▲노후기반시설보수 ▲CCTV설치 등 주민생활 안전 분야 ▲상·하수도, 빈집철거, 조성 등 주거생활 취약분야의 개선이 중심이다.

군산시가 신청한 '새뜰마을사업'은 근대역사문화 메카로서 군산의 '독창성', 인근 산업단지 및 학교, 군산시와의 협력을 통한 '연계성', 꽁당보리축제를 매개로한 '주민역량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도심속의 환경취약 개선의 필요 및 진정성을 담아내어 전문평가위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군산시 이광태 건축과장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협동, 사업지구 인근 산업단지 기업과 대학 등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선정

2019년까지 주택정비 · 휴먼케어 · 주민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 추진 계획

익산시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2016년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동산동 월담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2015년부터 시작된 '새뜰마을사업'은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익산시는 지난해 "KTX 익산역 주변지구" 선정에 이어 올해도 "동산동 월담지구"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선정된 "동산동 월담지구"는 경사지에 노후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좁은 골목길과 경사로, 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재해·안전·위생 등 생활여건 개선이 절실한 지역이다.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총사업비 56억원(국비 38억, 도비 5억, 시비 11억, 자부담 2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집수리 및 공·폐가 철거 등 주택정비 지원, 재해예방 및 노후위험시설물 보수 등 안전 확보, 소방도로 개설 및 경사지 옹벽설치 등 생활인프라 지원, 일자리창출 및 복지 등 휴먼케어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 이후 자활 등 주민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시는 작년에 이미「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한웅재 익산시장 권한 대행의 진두지휘 아래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 사업구상(안) 마련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올해 1월에 실시한 대상지역 현장평가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군산시는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7일까지 공모 접수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육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청대상은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춘 군산시 소재 기업과 기존 일자리창출사업 기업 중 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정되며, 2년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해 일자리 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www.gunsan.go.kr) 고시 공고란을 참고 또는 군산시 투자지원과 (☎454-277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쌀 수탈 교육벨트 조성공모 선정

군산시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주관하는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선도사업으로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선도사업인 '국산보리생산 하우스맥주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이은 2년 연속 선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2018년까지 국?도비 32억원 등 총 37억원을 투입하여 김제, 완주와 손잡고 근대역사문화 자원의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역사교육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일본의 쌀 수탈 생산지 김제와 저장소 역할을 한 완주, 쌀 반출장인 군산을 연계한 근대역사 현장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군산 조선식량영단 건물과 김제 아리랑 문학마을에 거점 교육공간을 조성하여 전시 및 학습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주 5일제 수업 전면실시, 자유학기제 시행, 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필수 지정 등으로 역사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지역의 근대 역사자원을 활용한 올바른 역사 의식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 및 관광객 유치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역사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은 관학협업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군산대 사학과 전공 인력을 중심으로 기획프로젝트팀이 구성돼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창업 동아리를 통해 교육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사업 종료 후 사회적 기업 등 창업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청년 전공자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도모하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설 연휴 귀성객 대상 군산 쌀 홍보 캠페인

군산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명품 군산 쌀 홍보를 위해 군산IC와 버스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군산 쌀 홍보 캠페인을 5일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매년 맞이하는 설 및 추석 명절에 친환경 쌀인 군산 쌀을 애용해 달라는 취지로, 군산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소포장 홍보용 쌀 1천포/800g을 증정할 계획이다.

군산 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2015년 2개 브랜드가 12개 우수 브랜드에 선정됐다.

또, 2003년부터 13년 동안 총 18회 선정되어 전국 최다 선정을 기록하여 군산 쌀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김성원 농산물유통과장은 "군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군산 쌀을 이런 기회를 통해 널리 알려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희망스터디사업 3월부터 실시

군산시는 '2016년 희망스터디사업'을 3월부터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또래집단과의 동등한 성장발달과 자신감을 부여하여 미래 동량으로 육성 하고자 마련됐다.

사업내용은 기준중위소득 43%이하(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학생 100여명에게 학력신장을 위한 교과목 학습 보충교육 및 특기적성 부문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원비를 지원한다. 학원비는 군산시가 50%를 지원하고 학생 본인부담금 10%, 학원 후원금 40% 부담으로 1가구당 1명을 지원하며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사업을 제공할 가맹학원을 모집하고, 16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업 희망 학생 모집 및 대상자를 선발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학원수강료를 지원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47개 가맹학원과 협약을 체결해 중학생 66명에게 학원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88% 학생들이 학원 이용에 만족하였다고 응답했다.

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상자와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